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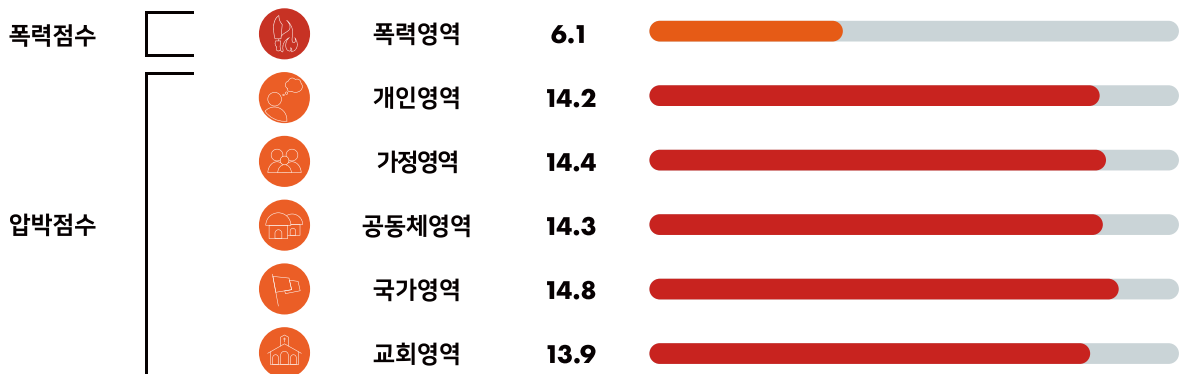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이라크 (IRAQ)

기독교 박해지수
17 위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 (6x16.7=100)

중요한 발견

이슬람국가(IS)가 영토를 상실한 이후, 이라크 기독교인들에게 가해지는 주요 압박의 원인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민병대였다. 그러나 IS는 2023년까지도 민간인, 사회 기반 시설, 보안군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공격을 감행했다. 이란과 터키 역시 쿠르디스탄노동자당(PKK) 소속 인사들을 표적으로 한다는 명목 아래, 이라크 쿠르디스탄 지역(IKR)에 대한 공습을 계속해왔으며, 터키는 지상 작전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이러한 공격은 주로 기독교인이 거주하는 마을에도 영향을 미쳐, 민간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탈출하게 만들었다.

역사적 전통을 지닌 교회들(동방아시리아교회, 시리아정교회, 시리아가톨릭교회, 칼데아가톨릭교회, 아르메니아정교회)는 특히 이슬람 급진 무장단체와 비기독교계 지도자들로부터 폭력, 불관용, 차별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다. 정부 당국으로부터도 차별을 겪고 있다. 바그다드와 바스라에 위치한 복음주의 교회들 역시 급진 이

슬람 단체와 비기독교 지도자들의 폭력 대상이 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차별도 받고 있다. 무슬림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가족으로부터 큰 압력을 받으며, 자신의 신앙을 비밀로 지키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상속 권이나 결혼할 권리 및 수단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 이슬람을 떠나는 일은 비교적 온건한 이슬람 지역인 쿠르디스탄 자치구(IKR) 내에서도 위험할 수 있다. 정교회에서 복음주의 교회로 옮기는 등 교단을 변경하는 경우, 종종 권리 박탈이라는 처벌을 받는다. 정교회와 가톨릭 교회의 지도자들이 복음주의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들의 혼인을 거부하는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2024년, 이라크 대법원은 쿠르디스탄 자치정부(Kurdish Regional Government) 의회 내 기독교인 의석 할당을 6석에서 3석으로 줄이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기독교인의 정치적 대표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라크 (Iraq)

국가 정보

지도자 : 모하메드 시아 알수다니 총리

인구 : 46,524,000 명

기독교인 수 : 187,000 명¹

주요종교 : 이슬람교

정부형태 : 연방 의회 공화국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인	187,000	0.4
무슬림	45,371,000	97.5
그 외 종교	648,630	1.4
불가지론자	223,000	0.5

출처²

2003년 미국 주도의 침공 이후 사담 후세인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권력 공백이 발생하면서, 수니파와 시아파 무슬림 간의 종파 갈등이 격화되었고, 기독교인들은 그 충돌 속에 휘말렸다. 이로 인해 난민들이 대거 이라크를 떠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흐름은 2014

년 6월 이슬람국가(IS)가 자칭 칼리프 국가를 수립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2016년 IS 점령 지역 상당 부분이 탈환된 이후, 기독교인들은 모술 인근의 카라코시(Qaraqosh) 등 과거에 기독교인이 다수를 이루던 해방된 도시들로 서서히 귀환하기 시작했다. 2017년 12월, 당시 총리는 IS가 이라크 영토에서 완전히 축출되었다고 선언했다. 2024년 첫 세 분기 동안에는 IS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보고되지 않았다.

이라크는 크게 두 지역으로 나뉜다. 북부에는 반(半) 자치적인 쿠르디스탄 지역(이라크 쿠르디스탄 지역, IKR)이 있으며, 이 지역은 공식적으로 에르빌(Erbil)에 기반을 둔 쿠르드자치정부(KRG)가 통치한다. 나머지 광범위한 아랍 지역은 바그다드에 본부를 둔 이

¹ Zurlo G A 및 Johnson T M, 편집자, 세계 기독교 데이터베이스, 라이덴 / 보스턴: Brill, 2024년 5월 접속

² 그 외에는 중국 민속, 신종교, 시크교, 정령교, 도교, 유교, 자이나교, 신도교, 조로아스터교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 Zurlo G A와 Johnson T M, 편집자, 세계 기독교 데이터베이스, 라이덴/보스턴: Brill, 2024년 5월 접속

라크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있다. 이라크는 총 19개의 주(지방/거버노레이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공식적으로 기독교인 인구가 등록된 주는 단 5곳—니네베(Nineveh), 에르빌(Erbil), 슬레이마니아(Sulaymaniyah), 도후크(Dohuk), 북부 키르쿠크(Kirkuk)—뿐이다. 이 외의 모든 주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떠났으며, 무슬림 배경을 가진 개종자 소수만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이라크 기독교인의 다수는 칼데아 가톨릭교회(Chaldean Catholics) 소속이며, 이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동방 전례 교단 중 하나이다. 약 20%는 동방 아시리아 교회(Assyrian Church of the East) 소속이다. 이라크에서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거주하는 쿠르디스탄 자치지역(IKR)에는 약 2,000명의 복음주의 교회 등록 신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S(이슬람국가)의 영토 패배 이후, 이라크 기독교인들이 받는 주요 압력의 원천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 파 민병대였다. 이러한 이란의 대리 세력들은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라크 내 미군 관련 시설에 대한 공격을 크게 확대했다. 한편 쿠르디스탄 지역에서는 터키가 쿠르드노동자당(PKK) 소속 인사들을 표적이라 주장하며 군사 작전을 계속해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독교인이 다수를 이루는 마을들 역시 공격을 받았다. 터키의 이 지역 내 군사 작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중단 없이 이어졌으며, 그로 인해 광범위한 주민 이주가 발생했고, 많은 기독교인들의 귀환이 막히고 있다.

2005년 제정된 이라크 헌법은 이슬람을 국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용되는 이슬람 법에 의하면, 무슬림이 종교를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금지되어 있으며, 무슬림으로 등록된 여성은 비무슬림과의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복잡한 가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에는 이라크 쿠르디스탄 자치정부(KRG) 내 한 법원이, 기독교 신앙으로 성장한 여성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명령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이 사건은 여성의 어머니가 기독교인 남편과 이혼 후 무슬림 남성과 재혼하면서 이슬람으로 개종했던 과거에 기인한 것이었

다. 이와 같은 법적·사회적 상황은 이라크 내 일부 기독교 가정의 직면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식 문서상 종교 정체성은 개인과 가족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기독교인의 정치적 대표성은 매우 낮아 전체의 약 1.5%에 불과하다. 2024년, 이라크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쿠르디스탄 자치정부(KRG) 의회 내 종교 및 소수 민족을 위한 할당 의석 수는 11석에서 5석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이라크 쿠르디스탄 지역(IKR) 의회 내 기독교인을 위한 의석도 기존의 6석에서 3석으로 축소되었다.

지역 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이라크의 대부분 기독교인은 북부 쿠르디스탄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라크 중부에 위치한 바그다드와 남부의 바스라에는 현재 소수의 기독교인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부 및 남부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의 주(省)를 떠났으며, 무슬림 배경에서 개종한 소수 집단만이 일부 지역에 남아 있다. 개종자에 대한 박해는 주로 이슬람 및 씨족 중심의 억압 형태로 나타나며, 이러한 인권 침해는 쿠르드 지역보다 아랍 지역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해외거주 기독교인 공동체들

이 범주는 세계감시목록(WWL) 점수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아시리아 정교회, 칼데아 가톨릭교회, 시리아 가톨릭교회, 아르메니아 교회 등은 모두 급진 이슬람 운동과 비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침해 행위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들은 또한 정부 당국으로부터도 차별을 받고 있다. 이라크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와 같은 기독교 상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검문소, 대학교, 직장, 정부 건물 등에서 괴롭힘이나 차별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개종자들

이 범주는 무슬림 배경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혹은 전통적인 기독교 교단 출신이지만 현재는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에서 예배하는 이들을 포함한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주로 가족이나 친척 등 가족으로부터 가장 큰 압력을 받으며, 새로운 신앙을 비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신앙이 드러날 경우, 가족, 부족 지도자, 지역 사회로부터 위협을 받을 위험이 크다. 정교회에서 복음주의 교회 등으로 교단을 바꾸는 경우에도 권리 박탈이나 고용 상실 등의 처벌을 받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바그다드와 바스라에 있는 복음주의, 침례교, 오순절 교회는 급진 이슬람 단체와 비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과 탄압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정부 당국의 차별도 경험하고 있다.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기독교인들은 이라크 중부 및 남부 지역에서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무슬림 대상 선교 활동을 했다는 의심을 받을 경우, 신성모독법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다. 복음주의 공동체의 경우, 성경학교 설립이나 해외 기독교 단체의 지원을 위한 조직 등록 등과 관련된 법적 제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이슬람 억압

이라크의 기독교인들은 수니파와 시아파 무슬림 모두로부터 민족에 상관없이(쿠르드족, 이란계, 아랍계 포함) 이슬람으로 부터 억압을 받고 있다. 이슬람 무장세력의 영향력은 이라크 전역, 심지어 쿠르디스탄 자치구(IKR)에서도 이슬람 의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새로운 요인이 되었다. 여러 시아파 정당들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무슬림 배경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특히 이란 국경 인접 지역에서 이란 비밀정보기관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상생활은 이슬람 교리와 담론에 지배되고 있으며, 이슬람 지도자들(특히 시아파)은 여전히 사회·종교·정치 전반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무슬림 배경의 기독교인들은 가족들로부터 이슬람으로의 재개종을 강요받으며, 때로는 살해 위협까지 받기도 한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통제도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바그다드와 바스라에 거주하는 기독교 여성들조차 외출 시 신체를 가리는 복장을 강요받고 있다. 과거에는 무슬림 시민들이 IS에 협력하거나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민병대에 가담한 사례도 있었으며, 대표적으로 모술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이러한 경험은 기독교인들이 공동체 내 이웃과 주민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이라크 전역의 일반 시민들조차 무슬림 배경의 기독교인들에게 이슬람으로 돌아가도록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다.

씨족 억압

이라크 사회는 여전히 씨족 중심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과거 IS가 점령했던 지역처럼 종파 갈등으로 혼란을 겪은 지역일수록 그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씨족주의가 이슬람과 결합될 경우, 무슬림 배경의 기독교인들에게 특히 큰 영향을 미친다. 민족 및 씨족 집단은 때때로 배타적 성향을 가진 정당을 결성하기도 하며, 기독교인은 손쉬운 공격 대상이 된다. 씨족 사회에서는 정부의 법보다 전통적인 관습과 규범을 따르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며, 씨족은 사실상 법 위의 존재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다.

독재적 편집증

이라크 중앙정부는 역대 정권 모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권력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여왔으며, 그 결과 종교 소수자들이 환영받는 다원적 사회의 실현은 번번이 실패해왔다. 쿠르디스탄 자치구(IKR)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은 2018년 총선 당시 선거법이 악용되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제기했다. 당시 쿠르드 및 시아파 정당들이 기독교인에게 할당된 국가위원회(National Council)의 5개 쿼터 의석을 차지했으며, 기독교 정당이 선출하지 않은 후보들을 기독교 대표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행정 수준의 정부 관계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위협하고 해외 이주를 '권유'하는 행태도 보고되고 있다.

조직적 부패와 범죄

이라크 전역에는 만연한 부패가 존재하며,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구조 속에서 착취당하고 있다. 이슬람 다수 지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주택을 시장가의 60% 수준에만 팔 수 있는 경우가 흔하다. 기독교인 소유의 토지가 몰수되었으며, 이라크를 탈출한 기독교인들이 남긴 부동산의 최소 70%가 불법적으로 조직 범죄 집단에 의해 점거되었다는 보고도 있다. 특히 바그다드에서 이러한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기독교 교단 간 보호주의

이라크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기독교 교단이 14개 존재한다. 새로운 교단이 등록을 신청할 경우, 기존의 공

인 교회들이 승인 절차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비전통적인 개신교 교단의 등록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역사적 전통을 가진 교회들은 종종 소속 신자들이 신흥 교회 공동체를 방문하는 것을 막으려 한다.

이라크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는, 전통 교회 출신의 기독교인이 비전통적 교회 공동체로 옮길 경우, 가족, 씨족 지도자, 지역 사회로부터 위협과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 역사적 교회 소속의 주교들이 복음주의 교회를 출석하는 신자들의 혼인을 집례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사례도 보고되어 있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IS(이슬람국가)와의 전쟁 기간 동안 종교 소수 여성들이 겪은 잔혹한 피해 이후, 여성들은 여전히 성별 기반 폭력의 위협에 놓여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독교 여성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히잡이나 베일을 착용하는데, 베일을 쓰지 않은 여성은 괴롭힘을 당하거나 심한 경우 돌팔매질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에 대한 범죄—납치, 강간, 성적 학대—는 전반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분위기 속에 방치되어 있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여성들은 가택연금, 구타, 성희롱, 심지어 '명예살인'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 미혼 개종 여성은 강제로 결혼을 강요당할 수 있으며, 남성 기독교인과의 법적 결혼도 불가능하다. 또한 일부 기독교 여성들은 무슬림 남성에게 유인되어 이후 괴롭힘을 당하거나 강제로 결혼을 요구받는 사례도 보고된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기독교인 배우자와의 법적 결혼이 거부됨
- 종교적 복장 강요
- 강제 이혼
- 강제 결혼
- 가족에 의한 감금(가택연금)
- 계획적인 유혹을 통한 접근
- 폭력 - 살해 / 신체적 / 심리적 / 성적 / 언어적



남성

기독교인들은 종종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직장에서 착취당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많은 경우 남성이 가족의 주된 생계부양자이기 때문에 일 자리를 잃는 것은 가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무슬림 배경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더욱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이들은 가족으로부터 추방당하거나, 협박을 받거나, 심지어 살해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이미 강한 이민 동기를 더욱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교회를 더욱 약화시키는 요소로는, 대부분 남성인 사제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구금, 납치, 살해의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있다. 이러한 위협은 특히 니네베 평원 지역에서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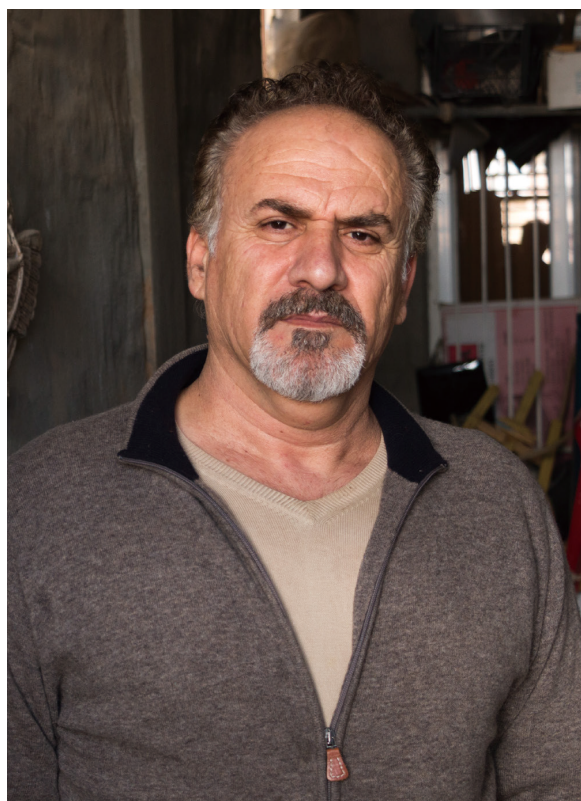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사업, 직업, 고용기회에 대한 경제적 괴롭힘
- 정부에 의한 구금
- 폭력 - 살해 / 심리적

월드와치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5	17	78
2024	16	79
2023	18	76
2022	14	78
2021	11	82

WWL 2024에서 79점이었던 전체 점수가 78점으로 하락한 이유는, 폭력 점수가 7.8점에서 6.7점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작년에 4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된 것과 달리 올해는 1명만이 살해된 데 따른 변화다. 그러나 여전히 폭력 수준은 매우 높은 편으로, 터키의 공격으로 교회 2곳이 파손되고 여러 명의 기독교인이 구금되었다. 평균 박해 점수는 여전히 극단적인 수준인 14.3점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광범위한 부패와 실질적인 보호의 부재는 기독교 공동체의 권리와 지위를 계속해서 악화시키고 있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2024년 6월**, 터키의 공격으로 인해 이라크 북부에 위치한 교회 두 곳이 피해를 입었다. 이 중 한 곳은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다른 한 곳은 경미한 손상을 입는 데 그쳤다.
- 보고 기간 중,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무슬림 배경의 기독교 개종자가 가족 구성원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살해당한 기독교인	교회가 공격당한 사건 수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한 기독교인	기독교인 사유 재산이 파손되거나 압류된 사건 수
2025	1	2	40	10*
2024	4	1	35	10*

이 표에는 보고 기간 동안 신앙 기반 폭력의 몇 가지 범주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결과는 해당 국가의 WWL 박해 동향의 폭력 섹션을 참조하라.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세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상징적인 정수(10, 100 또는 1000)가 표시되며,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동일한 원칙이 상징적인 숫자인 10,000, 100,000* 및 1,000,000*에도 적용된다.

개인 영역

무슬림 배경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공개하거나 다른 기독교인들과 모임을 가질 경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들은 배교와 반역 혐의로 비난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에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 이야기할 경우, 개종 권유혐의를 받거나 괴롭힘 및 폭력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 토착 기독교인들은 일반적으로 기독교 상징물을 착용하거나 드러낼 수 있지만, 매우 보수적인 이슬람 공동체에 거주할 경우 예외이다.

가족 영역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여성은 공식적으로 기독교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비무슬림 남성과의 법적 결혼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IS 무장세력에 의해 강제로 이슬람으로 개종당한 사람들—현재 무슬림으로 간주되는 기독교인 포함—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다. 이들은 법원에 출석하여 이슬람 개종을 선언해야 했고, 이후 모든 법적, 사회적 기록이 변경되었다. 2015년 제정된 국가 신분증법 제26조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이 무슬림이면 자녀는 무조건 무슬림으로 등록된다. 이는 무슬림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해 태어난 자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은 무슬림 부모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무슬림으로 간주된 아동은 이슬람 종교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법적으로 모든 학교(기독교 학교 포함)는 정기적인 이슬람 수업과 시험을 제공해야 한다. 이 시험에서 불합격할 경우 학년 진급이 불가능하다.

공동체 영역

바그다드, 바스라, 심지어 북부 지역에서도 기독교 여성들은 머리를 가리도록 압력을 받는다. 기독교인 대학생들은 일부 무슬림 교수들이 의도적으로 기독교 축일에 시험을 치르도록 일정을 잡는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아시리아계 학교들은 자신들이 차별받고 있으며, 정당하게 받아야 할 정부 지원금을 전액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라크의 교육은 이슬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정부 학교 및 대학교의 공식 교육 과정에서는 기독교인을 불신자이자 적으로 규정하고, 그들에 대한 지하드(성전)를 선동하는 내용

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 신분증 온라인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종교 정보를 요구하며, 신분증 내 전자 칩에도 종교 정보가 여전히 기록되어 있다. 이로 인해 취업 과정에서 기독교인이 차별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국가 의회나 정부 내 고위직을 일부 맡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대표성이 매우 낮다. 무슬림 배경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자신의 신앙이 밝혀지는 즉시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국가 영역

이라크 헌법에 따르면, 이라크는 이슬람 국가이며, 이슬람에 반하는 법률은 제정될 수 없다. 이슬람으로의 개종은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나 신앙으로 개종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허용되지 않는다. 이라크의 가정법에 따르면, 부부 중 한 명이 무슬림일 경우 이혼, 자녀 양육권, 상속권은 거의 자동적으로 무슬림 배우자에게 귀속된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은 군대와 같은 특정 기관에서 최고위직에 오르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승진을 위해 이슬람으로 개종하라는 압박을 받는 경우도 있다. 기독교인들은 정기적으로 온라인, 국영 방송, 그리고 급진 이슬람 단체들에 의해 비방 캠페인의 표적이 되고 있다.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대부분은 처벌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니네베 평원 지역에서는 중앙정부가 민병대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같은 무책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이라크를 떠나며 남긴 부동산 중 약 78%가 불법적으로 점유되었으나, 이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

교회 영역

청소년 사역은 교회 건물 내부에서만 허용된다. 이슬람 배경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이 지역 교회에 통합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이는 이라크 쿠르디스탄 지역(IKR)의 일부 쿠르드계 교회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고향을 떠나 익명성이 보장되는 대도시로 이주하거나, 아예 국외로 탈출하는 경우가 많다. 교회에 대한 감시 활동은 주로 신흥 교단들에서 보고되고 있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이라크는 다음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3.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 (CAT)
4.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5.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이라크는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규칙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새로운 신앙을 이유로 살해당하고 있다 (ICCPR 제6조)
- 현행 법은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의 개종을 금지하고 있다 (ICCPR 제18조)
-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자녀 양육권과 상속권을 박탈당한다 (ICCPR 제26조)
-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자녀는 무슬림으로 등록되며, 이슬람 교육을 강제로 받아야 한다 (ICCPR 제18조 및 CRC 제14조)
- 기독교 여성 개종자들은 무슬림 남성과 강제로 결혼당하고 있다 (ICCPR 제23조; CEDAW 제16조 및 ICESCR 제10조)



이라크의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이라크에서 박해, 차별, 불관용을 겪는 다른 종교 소수 집단으로는 야지디(Yezidi), 수니파(Sunni), 카카이(Kakai), 사비아-만다이교(Sabaeen-Mandaeans), 바하이(Bahai), 조로아스터교(Zoroastrians), 유대인(Jews) 등이 있다. 특히 야지디 공동체는 IS에 의해 극심한 학살과 잔혹 행위를 겪었으며, 피해 규모는 기독교인을 상회한다. 더 많은 야지디 여성과 소녀들이 성노예로 끌려갔으며, 더 많은 야지디 민간인들이 살해되었다. 2021년 3월 통과된 야지디 생존자 법(Yezidi Survivors Law)은 피해 생존자들에게 보상과 재활을 포함한 특별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그 완전한 이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중동연구소(Middle East Institute)는 2023년 7월 5일자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23년 4월, 야지디들은 증오 발언과 허위 비방 캠페인의 표적이 되었으며, 여기에는 IS가 저지른 범죄를 정당화하는 발언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같은 증오 발언은, 신자르(Sinjar) 지역에서 IS 연루 혐의가 있는 가족들의 귀환에 반대하는 평화 시위 중 야지디들이 이슬람 사원을 불태웠다는 허위 주장 이후 급속히 퍼졌다.”

수니파 공동체 역시 인권 침해 사례를 보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정부 계열 시아파 민병대에 의한 강제 추방과 탈바트당화(de-Baathification) 과정에서의 차별 등이 포함된다.

이라크 헌법은 기독교인, 야지디, 사비아-만다이교도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그 외의 종교인이나 무신론자에 대한 보호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바하이교는 법적으로 금지된 종교이며, 신앙 활동이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 법은 이라크 쿠르디스탄 지역(IKR)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바하이교가 공식 종교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도 이 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유대인들 역시 제한을 받고 있으며, 정부 기관이나 군 복무에 참여할 수 없어 공공 부문 취업에서의 배제와 전반적인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을 꺼리고 있다.

오픈도어의 이라크 사역

오픈도어는 현지 파트너 및 교회들과 협력하여 이라크 교회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 현장 동행 사역(Presence ministry)
- 훈련 프로그램 (트라우마 회복 훈련, 성경 교육, 교회 지도자 및 무슬림 배경 신자 대상 훈련 포함)
- 성경 및 기독교 문서 배포, 쿠르드어 번역 지원
-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사업 (국내 실향민(IDPs)을 위한 소액 대출 등)
- 교회 건물 수리 및 장비 지원, 교회 활동 등 구조적 지원
- 위기 구호 (이라크 북부 지역 주택 및 교회 재건 등)
- 기도 사역



- 이 문서의 내용은 매년 오픈 도어 인터내셔널의 연구 부서인 월드 와치 리서치(WWR)에서 발행하는 보다 상세한 WWL 박해 동향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무료로 사용 및 배포할 수 있지만, 출처를 항상 다음과 같이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5 Open Doors International.
- 모든 간략한 국가 프로파일은 오픈 도어 인터내셔널 웹사이트의 연구 페이지에서 'Advocacy resources' 하에 접근할 수 있으며, WWL 국가별 박해 동향 보고서, 국가별 배경 정보, WWL 방법론 최신 업데이트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는 오픈 도어 분석 웹사이트(비밀번호: freedom)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 WWL 2025 보고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문서의 많은 사진은 설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